

시편 88:11-13은 수사 의문문인가? 일반 의문문인가?¹⁾

이일레*

1. 들어가는 말

시편 88편은 양식의 특징에 따라 개인 탄원시로 분류될 수 있다. 병든 자의 전형적인 상황들, 고독과 외로움, 사회적 무관심과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시편 88편은²⁾ 무엇보다도 긴 고난의 끝자락에서 위협적인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다.³⁾ 그러므로 시편 88편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고난의 현상들이 중요한 주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하여 신학적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학 논쟁 중심에 있는 11[10]-13[12]⁴⁾절에 관한 문법적 구조의 판단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 Ruhr Universität Bochum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신학연구소 연구원.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강사. ilryelee@gmail.com.

- 1) 이 소논문은 필자의 ‘유일신 개념과 신정론’을 다룬 박사 학위 논문(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Monotheismus und Theodizeefrage in ausgewählten Klagepsalmen des Einzelnen*, Verlag-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Reihe XXIII Theologie, Bd. 937 (Frankfurt: Peter Lang, 2013) 중 일부분의 내용을 선택하여 ‘시편 88:11-13의 번역의 문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 2)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Frankfurt: Peter, 2013), 166; K. Seybold, *Das Gebet des Kranken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Kohlhammer, 1973), 115; E. Zenger, *Die Psalmen II* (Würzburg: Echter, 2002), 482.
- 3) 특별히 읊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88편을 채우고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시편 88편의 하나님 이해와 읊의 하나님 이해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 Haag, “Psalm 88, Freude an der Weisung des Herrn”, E. Haag and F.-L. Hossfeld eds., *Beiträge zur Theologie der Psalmen* (FS H. Groß [SBB 1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6), 149. 비교해 보라. H. D. Preuß, “Psalm 88 als Beispiel alttestamentlichen Redens vom Tod”, A. Strobel, ed., *Der Tod - ungelöstes Rätsel oder überwundener Feind?* (Stuttgart: Calwer, 1974), 63-79; H.-J. Kraus, *Psalmen 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773;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216 이후; 읊 16:7-14 (비교, 19:8-12; 30:12-14).
- 4) 이 논문에서 장절 표기는 히브리어 성경 BHS의 것을 먼저 적고 한글 성경의 것은 바로 뒤 []안에 넣기로 한다.

문법적 구조와 번역에 따라 시편 88편 본문 전체의 신학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먼저 시편 88편의 신학적인 이해와 논쟁을 바탕으로 히브리 성경에 ‘연속적인 질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11-13절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한 지금까지 연구사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말 성경이 시편 88:11-13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번역에 관하여 이의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드문 이유를 파악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작업을 근거로 시편 88:11-13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번역하는 근거가 어떤 신학적인 해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한다. 더 나아가 ‘일반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언어적 특징과 새로운 신학적 해석에서 찾아 제시하는 데 있다.

2. 수사 의문문인가? 일반 의문문인가?

2.1. 문제 제기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시편 88:11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새번역』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공동번역』

당신은 죽은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당신을 찬양합니까?

이렇게 번역된 의문문 문장들은 질문의 답으로 ‘아니오’를 기대하는 수사학적 질문이다.⁵⁾ 우리말 성경 번역이 이 부분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편 88편의 연구사⁶⁾의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5) 비교, 램 2:32의 경우 또한 수사학적 질문이다.

6) 비교, 2.2. 연구사.

이해할 수 있다. 11-13절에 대한 수사학적 해석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거의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NIV』

Is your love declared in the grave,
your faithfulness in Destruction?

『NASB』

Will You perform wonders for the dead?
Will the departed spirits rise and praise You?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석과 구별되는 번역은 없는 것일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독일어 엘버펠트 역(Elberfeld)과 루터 역(Luther Bibel)은 두 의문문 사이에 “oder”를 사용하고 있다. 킹제임스 역(King James Version)도 위에서 언급한 독일어 번역 본문과 동일하게 “or”를 사용하는 문법 구조를 택하고 있다.

『엘버펠트』

Wirst du an den Toten Wunder tun?
Oder werden die Gestorbenen aufstehen, dich preisen?

『루터』

Wirst du denn unter den Toten Wunder tun,
oder werden die Verstorbenen aufstehen und dir danken?

『킹제임스』

Shall thy lovingkindness be declared in the grave?
or thy faithfulness in destruction?

이처럼 독일어 번역에서 “oder”를 사용하는 것과 영어 번역에서 “or”를 사용하는 것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것에서 하나만이 문제가 됨’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11절이 질문이 “or”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수사학적인 대답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 88:11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הַלְמוֹתִים תַּעֲשֶׂה-פֶּלֶא (11a)

אִם-רַפְּאִים יִקְוּמוּ יוֹדוּךָ סֵלָה: (11b)

위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11절에서는 의문사 “הַ” (11a절)는 “אִם” (11b절)과 함께 ‘이중 질문’(Disjunktiv-Frag)을⁷⁾ 형성하고 있다(비교, 창 27:21하). 먼

저 창세기 27:21에서 의문사 “**הוּא**”와 “**אִ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용례를 살펴보자:

:אִם אִם עָשָׂו בְּנִי הֲיָא אִם
(비교, 창 27:21하)

『개역개정』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엘버펠트』

ob du wirklich mein Sohn Esau bist oder nicht!

『NASB』

whether you are really my son Esau **or** not.

창세기 본문은 어떤 번역도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만이 문제’가 되는 일반 ‘이중 질문’이다. 이와 같은 용례는 시편 88:11의 의문문을 선택적 ‘이중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절에서는 의문사 “**הוּא**”(11a절)와 “**אִם**”(11b절)이 형성하는 일반적 문법적인 의미는 선택적인 일반 의문문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연구사는 이 구절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해석해온 것일까?

2.2. 연구사

시편 88:11-13에서 연속되는 질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⁸⁾ 궁켈(H. Gunkel) 이후⁹⁾ 백년을 넘어 연구사는 이 부분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간주해 왔다.¹⁰⁾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

7) E. Jenni,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Basel: Helbing & Lichtenhahn, 1981), 86.

8)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95.

9)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381.

Tust du an dem Toten Wunder,

Stehn die Schatten auf, dich zu preisen ?

10) 무엇보다도 W. Groß는 “시편 88편의 중심축”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W. Groß, *Gott als Feind des einzelnen? Psalm 88*, Groß, W., ed., *Studien zur Priesterschrift und zu alttestamentlichen Gottesbildern, SBAB 30*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9), 164, “수사학적인 질문”(rhetorischer Fragen)에 관해서는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51-100, 573*;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19; C. de Vos, *Klage als Gotteslob aus der Tiefe: Der Mensch vor Gott in den individuellen Klagepsalmen*,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30; J. Schiller, “Für die Toten wirst Du ein Wunder tun”, *Protokolle zur Bibel 14* (2005), 61-66, 여기서 63;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 (München: Chr. Kaiser Verlag, ³1977), 161.

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니오”로 당연시 했다. 이러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시편 88편의 전체 구조를 세 부분으로 분류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편 88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11-13절의 질문들을 전체 본문 중의 하나이며 “전체 본문의 중심축”¹¹⁾으로 이해했다.¹²⁾ 그로스(W. Groß)는 11-13절의 질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JHWH-Ferne)된 지하 세계(Scheol)와 그 세계의 사람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는 시편 88:11-13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문들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¹³⁾

이러한 경향은 야노브스키(B. Janowski)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는 11-13절을 시편 88편 전체의 신학적인 핵심부분으로 해석한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야웨와 죽음의 세계에 있는 자의 단절된 관계(Beziehungslosigkeit)가 시편 88편의 근본적인 신학적 사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은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11-13절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한다.¹⁴⁾

그러나 이 부분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하는 지금까지의 견해에 크뤼제만은 회의적이다. 그에 따르면 11-13절은 많은 해석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한 주장(Behauptungen)도 아니다.¹⁵⁾ 크뤼제만은 지금까지의 연구사가 이 부분의 텍스트로 단지 그렇게 다루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의 연구사와 방향을 달리하는 이해의 근간은 본문의 특징에 관한 관찰뿐만 아니라 하나님-탄원의 해석에 있다. 그는 시인이 하나님께 ‘죽은 자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의문문 형식을 통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⁶⁾

이제 정리해 보자! 11-13절을 수사 의문문으로 보는 연구사에 따르면 11절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기도하

11) W. Groß, “Gott als Feind des einzelnen? Psalm 88”, 161.

12) J. Schiller, “Für die Toten wirst Du ein Wunder tun”, 63.

13) W. Groß, “Gott als Feind des einzelnen? Psalm 88”, 164.

14)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19.

15) F. Crüsemann, “Rhetorische Fragen!? Eine Aufkündigung des Konsenses über Psalm 88, 11-13 und seine Bedeutung für das alttestamentliche Rede von Gott und Tod”, *Biblical Interpretation* 11 (2003), 351.

16) B. Janowski, “Die Toten loben JHWH nicht. Psalm 88 und das alttestamentliche Todesverständnis”, F. Avemarie and H. Lichtenberger, eds., *Auferstehung - Resurrektion*, WUNT 135 (Tübingen: Mohr, 2001), 18.

는 시인은 제외된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 즉 시인이 물리적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도 찬양할 수 없으므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연구사는 신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단계가 태동되고 있다는 주장이다.¹⁷⁾ “신학적인 진공상태(Vakuum)”에서 묵시적인(apokalyptisch) 부활신앙의 기운이 싹트는 서막으로 이해한다.¹⁸⁾ 다시 말하면 주전 4세기 중반부터 죽음의 한계의 극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개인 탄원이나 감사사에서 고난의 경험을, 죽음과 접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한다.¹⁹⁾

그러나 크뤼제만(F. Crüsemann)은 시편 88편은 시간상 통일성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본문에서 묵시적인(apokalyptisch) 부활신앙(Auferstehungsglauben)에로의 발전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²⁰⁾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는 급진적인 현상의 태동은 사실상 중요한 발전이다”라고 지적하며 시편 88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11-13절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보는 연구사는 시편 88편의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죽은 자들(die Toten)에게 기적(Wunder)을 행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동시에 죽은 자들의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로 이해한다.²¹⁾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시편 88편의 근본적인 신학사상으로 연구사가 제시한 ‘하나님 이해’는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시편 88편에 나타나는 원수-탄원을 비교 분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2.3.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로 인한 시인의 충격과 경직: 5-6절

궁켈 이후 지배적인 양식사 비평을 통한 괄목할 만한 시편 이해의 성과

17)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33; 비교, H. Gese, “Der Tod im Alten Testament”, Gese, H., ed., *Zur biblischen Theologie. Alttestamentliche Vorträge* (Tübingen: Mohr, ³1989), 41-45.

18) Ibid., 233.

19)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33; H. Gese, “Der Tod im Alten Testament”, 41f; D. Michel, “Ich aber bin immer bei dir. Von der Unsterblichkeit der Gottesbeziehung”,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alttestamentlicher Texte*, TB 93 (Gütersloh: Christian Kaiser, 1997), 156-160.

20) F. Crüsemann, “Rhetorische Fragen!? Eine Aufkündigung des Konsenses über Psalm 88,11-13 und seine Bedeutung für das alttestamentliche Rede von Gott und Tod”, 347.

21) Ibid., 347.

는 개인 탄원시의 구조를 자신에 대한 탄원, 하나님 탄원 그리고 적(원수)에 대한 탄원이란 세 가지 요소로 나누고,²²⁾ 적에 대한 탄원과 관련하여 적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방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²³⁾ 개인 탄원시를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탄원의 형식 속에서 고난 받는 시인(저자)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들을 표현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탄원의 형식 속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죄에서 찾아 고백하거나 또는 다른 경우 그들의 무죄와 결백을 강조한다.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는 경우, 하나님 탄원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간접적인 원인으로써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장본인으로써 언급되며 고발되고 있다. 그리고 탄원시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원수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모든 탄원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²⁴⁾ 원수 탄원에서 시인은 그들의 원수를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소망한다.²⁵⁾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편 연구사는 시편 88편에 개인 탄원시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 ‘원수 탄원’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²⁶⁾ 학(E. Haag)은 시편 88편에서 고난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대화, 그리고 청원과 들음의 부분을 제외하면, 이 시에서 개인 탄원시의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야노브스키(B. Janowski)는 시편 88편에는 원수-탄원 대신에 하나님-탄원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²⁸⁾ 또한 시인의 자기-탄원이 약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원수-탄원은 하나님-탄원으로 변형되며, 시인은 어떠한 신뢰의 표현도,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청원도 그의 시에서 관철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편 88

22) 시편 관련 번역서에서 독일어 ‘Klage’를 우리말로 ‘탄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C. 베스터만, 『시편해설: 시편의 주제, 구조 그리고 메시지』, 노희원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47-57. 그러나 탄식이란 번역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탄원시에서 시인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Klage’를 우리말로 ‘탄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다. E. 쟈어, 『복수의 하나님?』, 이일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5ff; 차준희, 『시편신앙과의 만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340.

23) R. Albertz,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P. Stuhlmacher and C. Westermann, eds., *Calwer Theologische Monographien* 9 (Stuttgart: Calwer, 1978), 44.

24) Ibid.

25) E. 쟈어, 『복수의 하나님?』, 15-20.

26) C. de Vos, *Klage als Gotteslob aus der Tiefe*, 24; E. Haag, *Psalms* 88, 155; B. Janowski, “Die Toten loben JHWH nicht. Psalm 88 und das alttestamentliche Todesverständnis”, 9; Lindström, *Suffering and Sin. Interpretations of Illness in the Individual Complaint Psalms*, CB.OT 37 (Lund: Almqvist & Wiksell, 1994), 202; H.-J. Kraus, *Psalmen II*, 773.

27) E. Haag, *Psalms* 88, 155.

28)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07.

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시인의 고난의 상황을 첨예화하고 있다고 야노브스키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그로스(W. Groß)는 시편 88편에서 원수들의 등장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원수들이 시인의 고난을 악이용하지는 않지만 시인을 업신여기며 경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그의 주변인의 의도적인 비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시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베스트만(C. Westermann)은 시편 88편의 구조 속에서 원수-탄원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7-8, 15, 19a절의 하나님-탄원; 4-6, 9b-10b, 16, 19b절의 자기-탄원; 9a, 17-18절의 원수-탄원.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88편에서 원수-탄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원수-탄원이 시편 88편에서 차지하는 신학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 것일까? 시편 88:11-13의 의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열쇠를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일까?

2.3.1. “נְחֻשְׁבָתַי”와 “נִנְגְרוּ”에 나타난 원수들 (5-6절)

시편 88편의 전체 구조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고난에 대한 묘사(4[3]절)와 자기 탄원(2-3[1-2]절)
2. 원수 탄원에서 나타나는 제삼자의 판단(5-6[4-5]절)
3.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탄원(7-9[6-8]절)
4. 죽음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질문(10-14[9-13]절)
5. 신정론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15-19[14-18]절)

시편 88편의 ‘원수-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번째 단락(5-6절)을 분석해 볼 수 있다:

נְחֻשְׁבָתַי עִם־יֹרְדֵי בְּוֹר (V. 5a) הָיִיתִי כְּנֹבֵר אִין־אֵיל:
 בְּמֹתָיִם חָפְשִׁי כְּמוֹ (V. 6a) הַלָּלִים שְׁכַבִּי קֹבֵר (V. 6b)
 אֲשֶׁר לֹא זָכַרְתֶּם עֹד (V. 6c) וְהִמָּה מִיָּדָה נִנְגְרוּ: (V. 6d)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의 ‘원수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인과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논쟁의 기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동사, נְחֻשְׁבָתַי와 נִנְגְרוּ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²⁹⁾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29)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74.

탄원을 동사 נִחַשְׁבְּתִי로 시작하며(5절), 동시에 동사 נִנְיָרוּ로(6절) 닫고 있다.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동사는 니팔 형태이며, 5-6절의 두 번째 단락의 틀(Rahmen)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수동형 문장을 구성하면서 간접적인 주어를 시사하는 문학적인 특징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관련하여 “제삼자”(Dritten)의 존재에 대하여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88편에서 “원수”(Dritten)가 직접적으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후관계(Hintergrund)속에서 충분히 ‘원수’를 인식할 수 있으며,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원수-탄원의 장르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제삼자”(Dritten)를 시인의 “원수”로 규명할 수 있다면, 그들이 원수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것일까? 5절의 수동태의 표현을 살펴보자. 두 문장, ‘נִחַשְׁבְּתִי עִם־יָוֵרָי בֹּרַ’ (수동형: 무덤에 누운 자처럼 간주되며)와 ‘הָיִיתִי כְּנֶבֶר אֵין־אֵלִי:’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에서 시인은 “제삼자”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상태를 희망이 단절된 버려진 상황으로 이해하는 제삼자를 폭로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시편의 양식비평이 제시하는 개인 탄원시의 구조 중에서 자신에 대한 탄원이며 동시에 적(원수)에 대한 탄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편 88편에서 원수-탄원은 시인을 이미 죽은 자로, 죽음의 세계로 접어든 자로 간주 하는 “제삼자”(Dritten)에 대한 탄원으로 시작된다.³⁰⁾

시인에 대한 “제삼자”의 판단은 6절에서 더욱 심각하다. 시인은 6a절에서 “בְּנִפְתָּיִם” (죽은 자들)과 6b절에서 “קֶבֶר” (무덤)란 용어를 통해서 자신의 실제적인 고난을 물리적 죽음의 현상과 동일시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5절과 6절에 표현되어 있는 정황은 실제적인 물리적 죽음을 의미한다.³¹⁾ 구약성서에서 죽은 자를 위한 장소는 수직굴 무덤(Schachtgrab)으로 표현할 수 있다. 땅 속을 깊이 수직적으로 파고 들어가 죽은 자를 위한 방을 만들고 그곳에 죽은 자를 안치하는 형식이다.³²⁾ 이 부분의 논지에 관해서는 시인과 그의 원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한 시인의 현상을 보는 관점은 시인과 제삼자가 일치하지만 신학적 관점의 양분화는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두 번째 단락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는 6c절과 6d

30)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76.

31) B. Janowskie,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228.

32) *Ibid.*, 228.

절에서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6c-d절의 אֲנִי-문장에는 두 동사 זָכַרְתֶּם(그들을 기억하다)과 נִקְרַעְתֶּם(끊어진 자이다)가 나타나고 있다. “제삼자”(Dritten)의 시인에 관한 이해는 5절에서 시작하여 6절 후반부의 “לֹא זָכַרְתֶּם עִירִי”(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표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동사 זָכַרְתֶּם을 분석해보자. 3인칭 복수형태 목적어를 가진 2인칭 단수형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2인칭 동사는 하나님을, 3인칭 복수형태 목적어는 불특정 다수가 되는 ‘죽음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규명한다. 시인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사가 말하는 것처럼³³⁾ 문장 구조상 시인이 ‘죽음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외될 수 없다. 시인은 이 무리들 중의 하나로 자신을 취급하는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다. 원수 탄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6d절의 니팔형의 동사 נִקְרַעְתֶּם(그들은 당신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삶의 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단절됨/제외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하는 동사의 그룹에 속한다.³⁴⁾ 이 표현은 또한 보호, 강함, 안전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손”(יְמִינֶיךָ)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가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³⁵⁾ 이 탄원은 동시에 “제삼자”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Totenweltvorstellung)로 인한 시인의 경직과 트라우마를 의미한다.³⁶⁾ 하나님과 죽음의 영역 사이에 극복될 수 없는 단절을 주장하는 주변인의 하나님 이해를 시인은 맹렬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을 통해서 단지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die Menschen in der Totenwelt)과 “자신”(das Ich) 사이의 긴장감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제삼자와의 갈등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제삼자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이 탄원하고 있는 “제삼자”(Dritten)를 시인의 원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단락(5-6절)을 원수 탄원으로 어렵지 않게 동일시할 수 있다!

33) 2.2. 연구사 참조.

34)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11, 참조하라. 겔 37:11; 애 3:54.

35) 참조, Ps 31:6, 16; 37:24; 80:18; 95:7;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11-212. 특별히 아웨의 “오른손” 또는 “오른쪽”은 시인을 강하게 하며 보호한다(시 18:36; 109:31; 110:5; 121:5).

36)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76.

“제삼자”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테제와 관찰은 본래의 고난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게 한다. 시인의 트라우마는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시인은 그들의 하나님 이해를 위협적인 고난으로 간주하고 있다. 질병 중에 있는 시인의 상황을 하나님의 힘의 영역에서 벗어나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로 인해 시인은 그의 고난이 더욱 가중됨을 탄원하고 있다.

시인과 그의 “원수”(제삼자)와의 긴장감으로부터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논쟁, 원수-탄원의 주제는 시편 88편 전체 주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2.3.2. 원수-탄원 속에 나타나는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

두 번째 단락(5-6절)은 고난당하는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의 원수인 “제삼자”³⁷⁾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제삼자”는 시인의 고난을 죽음의 세계에 관한 전통적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시인은 그들의 판단(Urteil)을 악(Übel)으로 규정하며 탄원하고 있다(비교, 4[3]절).³⁸⁾ 시인의 고난을 한층 가중시켜 그의 영혼을 재난으로 피폐하게 한 것은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이다.

원수들의 이해에 따르면 시인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며 잊혀진 상황을 의미한다. “무덤으로 내려 가는 자”(5절)의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⁹⁾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⁴⁰⁾ 시인의 원수들은 죽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권한 밖에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며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전적으로 소외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제삼자”의 하나님 이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JHWH)의 권한은 삶의 세계에 제한된다; 또는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JHWH)이 지배하지 않은 힘의 세계이다. 이러한 이해는 다신론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적 관계성 속에

37) 본 논문은 5-6절에 나타나고 있는 “제삼자”의 존재를 마지막 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인의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의 지인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후부터는 주변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38) 참조,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77: 여기서 4[3]절에 관한 주석을 다루지 않지만 학위논문에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39) 참조, H. Eising, “זכר”, *ThWAT II* (1977), 578.

40) *Ibid.*, 578. 다른 경우, 창 30:22; 삼상 11:19; 삿 16:28.

는 하나님이 유일신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렇다면 5-6절에 나타나는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함에 관한 시인과 제삼자의 이해는 상충된다. 이러한 이해는 11-13절의 ‘연속되는 질문’ 해석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왜 지금까지 연구사는 11-13절의 ‘연속되는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주장하는 것일까? 이들은 5-6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11-13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보는 연구사의 공통적인 이해는 시편 88편의 시인의 고난을 죽음에 처한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시인의 ‘물리적인 실제적인 죽음’에 연구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삶의 실존적인 위협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의 절정에서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야노브스키(B. Janowski)는 시편 88편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가 태동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¹⁾ 그에 따르면 개인 탄원시 시편 88편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aus) 구원에 대한 소망 또는 회복될 수 없는 죽음에서(vor) 보호되는 희망을 표현한다.⁴²⁾ 즉 시편 88편에서 하나님에 의한 죽음으로부터(aus) 구원의 경험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서의(im Tod)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개인 탄원시나 감사사에서 고난의 경험을, 죽음과 접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며 고난으로부터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 88편의 전체적인 하나님 이해는 ‘산 자의 하나님’ 이해이다.

바르트(C. Barth)는 시편 88편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죽음의 경험과 상응하여 반대되는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고난 극복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한 “삶의 실존의 위협으로부터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영역 내부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게제(H. Gese)는 인간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행위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삶의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⁴⁴⁾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시편 88편의 신학적인 주제를 시인

41)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33.

42) 비교, 시편 6:6; 30:10; 115:17; 사 38:18; 시락 17:27-28.

43) C. Barth, *Die Errettung vom Tode in den individuellen Klage- und Dankliedern des Alten Testaments*, Mit zwei Anhängen, einer Bibliographie und Registern neu herausgegeben von B. Janowsk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²1987), 93.

44) 비교, H. Gese, *Tod*, 41-45.

의 고난을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동일시하며 시인의 고난 극복의 문제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했다. 이 본문에서 연구사는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에 몰입하여 이 신학적인 테제를 전체 시편 88편의 주제로 이해하는 데 머물고 있다. 그들은 시인의 탄원을 “죽은 자에게 야웨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고, 행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기”⁴⁵⁾ 때문에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연구사가 11-13절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하게 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5-6절에서 시인과 그의 원수들의 논쟁의 주제는 ‘실제적 죽음과 그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시인은 자신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6절)”로 간주하는 그들을 그와 다른 하나님 이해에 근거하여 원수들로 규명하며 그들의 괴롭힘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그들의 이해에 저항하고 있다.

부설: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

철기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죽음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종교사적, 고대 비문학, 고고학의 작업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죽음의 영역과 하나님(JHWH)과의 단절(Distanz)에 대한 견해는, 고대 시리아-팔레스타인과 요시아 시대, 씨족 종교에 비로소 야웨 외의 신에 대한 배타성(Exklusivitätsanspruch JHWHs)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대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도 종교 의식에서 자리하고 있다.⁴⁶⁾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구약성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대 셈족의 이해이다.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그의 세계와의 밀접한 접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죽음의 세계는 종교의식을 통해

45) B. Janowski, “Die Toten loben JHWH nicht. Psalm 88 und das alttestamentliche Todesverständnis”, 18.

46)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226; K. Butting, “Der Tod wird nicht mehr sein”, *JK* 66 (2005), 1-4.

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종교의식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유대 관계를 사회적인 영역(가족, 씨족, 부족) 안에서 또한 지역적인 영역(무덤, 신성한 곳)에서 중재한다. 이 단계의 경우 죽은 자는 그의 조상들과(창 25:8; 35:29; 49:33; 민 27:13 등등) 만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부터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산 자가 죽은 자와 만나는 전통적인 견해는 부인되며, 7세기 야웨-유일성 운동(JHWH-allein-Bewegung)과 관련된다. 죽음의 세계는 신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분리된 영역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멸(“Ausblendung der Toten”)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웨-유일성 운동(JHWH-allein-Bewegung)과 요시아 종교 개혁(비교, 출 22:17, 28)은 이와 같은 모든 이해를 민족종교(offizielle Religion)의 범주에서 추방 시킨다.⁴⁷⁾ 신명기 사가의 운동의 영향력 아래서 요시아 시대부터 무엇보다도 유다의 멸망 이후 전통적인 피안의 세계에 대한 신앙과 마술-점복술(magisch-mantischen Praktiken)은 신랄한 비평을 받게 된다(신 18:9-14). 이러한 발전 단계는 보완적으로 죽음의 세계에 야웨의 권한과 연결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포로기 이전(후기)/포로기/포로기 이후 개인 탄원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이해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희망의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영원한 삶,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죽은 자의 부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과정(Übergänge)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혜 문학적인 사고의 영향 아래서 오랫동안 새로운 존재의 형식에 의해서 “영원한 삶”,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태동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⁴⁸⁾ 세 번째 단계로서, 유대의 묵시록(juedischen Apokalyptik)에서 새로운 삶의 부활의 약속이 발생하였다. 야웨를 모든 현실의 근간(Grund)으로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야웨-신앙은 내세(Jenseit)의, 예를 들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다.

47) B. Janowski, *De Gott des Lebens*, 226-229.

48)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32. 비교, D. Michel, “Ich aber bin immer bei dir. Von der Unsterblichkeit der Gottesbeziehung”, D. Michel, ed.,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alttestamentlicher Texte*, TB 93 (Gütersloh: Christian Kaiser, 1997), 155-179, 특히 159. 이러한 영향은 미셸(D. Michel)에 따르면 2가지 관점으로 나타난다. “기원전 4-5세기 사회 정치적 관계의 점차적인 변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대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와 그 정의의 효력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현실세계,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있는 순간(Leben)에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이 질문은 우리를 [명제의] 해결 불가능성(Aporie)에 이르게 한다.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한계의 경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세상’의 최종적인 가치 부여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네 번째 단계는 헬레니즘 시대에 텍스트에 나타나고 있다. 헬레니즘의 유대교에서, 죽지 않는 영혼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네 번째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⁴⁹⁾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묵시록적인 희망은 초기 유대교와 원 기독교의 부활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야웨와 죽은 자들의 관계에 관한 이해 또는 죽음의 극복에 대한 이해는 부활의 소망(Auferstehungshoffnung)과 관련하여 우선 헬레니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견해에 야노브스키(B. Janowski)는 반대한다. 다시 말하면 주전 4세기 중반부터 죽음의 한계의 극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며(사 25:8a)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사야 26:7-21의 최후의 심판(Endgericht)과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시온의 신들의 왕 야웨가 오실 때, 하나님 백성의 출생의 묵시적인(apokalyptisch) 모티브가 나타난다. 여기서 유일신 개념의 발전성,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 사상의 위기와 개인 탄원시편과 감사시에 나타나는 죽음에 관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상이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고백의 배경에는 이사야 25:8; 26:19 시편 22:28-32와 다니엘 12:2 이후 등과 같은 후기 텍스트에서, 또한 구약성서에서 죽은 자의 소생(Auferweckung)과 “이 한계의 최종적인 극복”⁵⁰⁾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죽음의 세계에 관한 이해는 뚜렷한 발전의 단계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88편에 나타나는 시인과 제삼자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스라엘과 유일신 세계’에서 유추해 서로 적용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2.4. 7-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는 5-6절과 7-9절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자. 죽은 것과 다를 것 없는 저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두 부분은 모두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공통적인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노브스키는 5-9절의 부분을 극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저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

49) B. Lang and C. Mc Dannell, *Der Himmel. Eine Kulturgeschichte des ewigen Lebens* (Frankfurt a. M.: Peter Lang, 1996), 17-25, 비교; Lang, “Leben nach dem Tod”, NBL 2 (1995), 599-601 und im Anschluß an Lang: Bieberstein, a.a.O., 13ff, 비교. B. Janowski, “Jenseitsvorstellungen II/2”, RGG, Bd. 4 (2001), 406-407; 비교,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26-227.

50) D. Michel, “Ich aber bin immer bei dir. Von der Unsterblichkeit der Gottesbeziehung”, 159.

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야노브스키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연구사의 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이해는 두 단락의 공통 주제에만 집중하므로 두 단락이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서로 상이한 신학적인 ‘하나님 이해’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말 중요한 구문상의 큰 차이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단락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주제는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면, 5-6절은 원수 탄원으로 이루어진 시인 자신에 대한 묘사(Ich-Aussage)이다. 이와는 달리 7-9절은 하나님 탄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묘사(Du-Aussage)이다. 두 단락은 서로 구문상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셋째 단락(7-9절)에서 시인은 5-6절에 나타나 있는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2인칭 표현(Du-Aussage)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두 부분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나는 구문상의 차이점을 통해서 시인은 두 부분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인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 7-9절에서 시인은 그의 주변인과 다른 하나님 이해를 어떻게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표현되는 그의 하나님 이해는 11-13절의 ‘연속적인 질문’과 어떤 관련성을 형성하는 것일까?

2.4.1. “שָׁתַנִּי”에 나타난 하나님

새로운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 7-9절은 “שָׁתַנִּי”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단어 “שָׁתַנִּי”로 단락을 마무리한다.⁵²⁾

שָׁתַנִּי בְּבוֹר תַּחְתִּיּוֹת בְּמַחְשָׁבִים בְּמַצְלוֹת: (7a절)

עָלֵי סִמְכָה חֲמַתְךָ (8a절)

וְכָל־מִשְׁבְּרֶיךָ עֲנִיתָ סְלָה: (8b절)

הֲרַחֲקֵת מִיָּדַי מִמְּנֵי (9a절)

שָׁתַנִּי תוֹעֵבוֹת לְמוֹ כָּלֵא וְלֹא אֲצַא: (9b절)

7a절과 9b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 “שָׁתַנִּי”(당신이 나를 …에 두다)는 세 번째 단락의 테두름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단락 전체의 후렴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형식을 빌려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 형식에 담겨진 내용상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와 이를 통

51)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09.

52)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86.

해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시인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⁵³⁾

7a절과 9b절에 나타나는 동사, “אָנַחְתִּי”의 테두름 속에 있는 단어들은 모두 고난으로 인한 절망의 깊이를 말해주는 명사구들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인은 세 개의 전치사 구(깊은 웅덩이와; 어둠 속에; 음침한 곳에)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에 가까이 감으로써 경험하는 고난의 ‘처참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절정의 표현을, “אָנַחְתִּי” 동사를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비교, 7, 9b절).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7, 9b절)⁵⁴⁾, 그리고 그 행위에 관한 기록이 이 단락의(7-9절) 중심을 이루고 있는 8-9a절을 통해서 한층 구체적인 현실로 표현되어 있다. 단락의 시작을 열고 있는 문장,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과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7절)는 두 번째 단락(5-6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죽음과 같은 시인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과 동일시되는 시인의 고난의 정황이다.⁵⁵⁾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단락을 살펴보자!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7a절의 “אָנַחְתִּי”를 통해 위협적인 시인의 상황과 그 상황으로부터 경험되는 부정적인 하나님 경험이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7절에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이미 5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 “אָנַחְתִּי”(5a절)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전 단락, 5-6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시인은 그의 원수들(제삼자)과 서로 다른 하나님 이해로 인한 이차적인 고난을 탄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고난 상태를 그의 원수들이 사용한 언어층(Wortebene)을 사용하므로 그들과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5절과 7절에서 각각 구별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5절에 표현되어 있는 시인의 상황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상태”(6절)인 것과는 달리, 7a절에서는 깊은 “אָנַחְתִּי”(웅덩이)에 시인을 데려다 놓은 분(אָנַחְתִּי; 1인칭 접미사를 가진 2인칭 동사)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7a, 9b). 이와 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진 구절의 내용상 대비 구조를 통해서 시사 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원수들의 생각과 대조시킴으로서, 시인은 원수와 대조적인 하나님 이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특별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인칭대명사 어미를 갖고

53) Ibid., 186.

54) Ibid., 187.

55) 각주 26번을 참조하라.

있는 언어들을 통해 고난을 표현하고 있다. 이 인칭대명사 어미는 특별히 1인칭과 2인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אֵלַי”(나를)는 “הִמָּחֵרָה”(당신의 노하심)와 “וְכָל־מִשְׁבְּרֵיךָ”(당신의 모든 과도기)와 대구를 이루고(8a, 8b); “לִמְנִי”(내게서)는 “הִרְחַקְתָּ”(당신이 멀리 떠나게 하시고)와 연결되며, “שִׁתָּנִי”(당신이 나를 ...에 두다)는 “אֶצְאָה”(나는 나가다)와 연결된다(9a, 9b). 시인은 이와 같은 문장과 어휘의 관련성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너무나 약한 시인 자신에 관한 은유를 대조 시키며, 그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세계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 또한 야웨의 권한의 영역이라는 사상은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을 실제적인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다(7a, 9b). 이와 같은 신학적인 주제는 두 번째 단락 이후(5-6절) 세 번째 단락 7-9절에서 구문상뿐만 아니라 내용상 대비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2.4.2. 하나님-탄원 속에 나타나는 시인의 하나님 이해

세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다시 죽음의 세계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의 권한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두 번째 단락과는 달리 시인은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야웨의 절대적 개입을 통해서 삶의 위협으로부터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Errettung aus dem Tod), 죽음으로부터(in), 죽음의 폭력으로부터⁵⁶⁾ 구원받는 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은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코 아니라는 이해에 길을 터주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시인의 이해가 과도기적인 시점⁵⁷⁾에 있다고 우리가 규정할지라도, 그는 죽음과 죽음의 영역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한에 관해서 유일신론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죽은 자와 야웨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는 구약성서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빛을 제시한다.

56) C. Barth, *Errettung vom Tode*, 93.

57) 위의 ‘부설: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 참조.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인과 그의 주변인들의 죽음의 세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이해를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작시기를 명확히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 88편의 편집시기를 일반적으로 포로기 후기로 산정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한 저작 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내용상 분석을 통해서 시인과 그의 주변인인 원수들 사이의 서로 다른 하나님 이해가 상충되어 있다는 주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단계에서 자유롭다.

성서의 언어에는 고난과 최종적인 죽음 사이의 차이점이 실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⁵⁸⁾ 시인은 극복할 수 있는 고난과 최종적인 죽음 사이의 차이를 그의 탄원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희망할 수 있듯이 질병의 회복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시인을 (실제적인)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를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그의 하나님 이해에 의하면 주변인의 이해와는 달리, 엄격한 야웨의 ‘유일신 숭배 요구’(Alleinverehrungsanspruch)의 발생과 함께 또한 죽음의 영역에서 어떠한 다른 신이 경배될 수 없다.⁵⁹⁾ 시인은 자신이 죽음의 세계에 하나님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유일신론적인 신앙은 이스라엘의 죽음에 관한 이해에서 하나의 통찰의 도약을 작동시킨다. 죽음의 세계는 야웨의 통치 밖에 놓여 있는 한 영역이 될 수 없다. 그곳에 다른 힘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단지 삶의 하나님이라면 그는 유일하신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인은(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죽음으로부터(in) 구원의 경험을 증명함으로써, 그는 죽음의 세계 저 편에서(jenseits)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야웨-신앙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5. 죽음의 세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지금까지 11-13절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보는 연구사의 신학적인 근거는 시편 88편에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죽음과 접촉하는 것과 동일한 고난의 경험을, 고난의 절정으로 이해하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죽음으로부터의(aus)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⁶⁰⁾ 이와 같은 이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산 자만의 하나님으로 규정했고 11-13절을 수사학적으로 해석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사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 있는 “제삼자”의 하나님 이해를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시편 88편 본문 전체에서 진행되는 논쟁 속에 담겨 있는 서로 다른 하나님 이해에 대한 논쟁을 간과하고 있다.

58)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185.

59) R. Liwak, “מִי־אֵלֹהִים”, *ThWAT VII* (1993), 625-636; B. B. Schmitt, *Israel's Beneficent Dead: Ancestor Cult and Necromancy in Ancient Israelite Religion and Tradition*, FAT 11 (Tübingen; Mohr, 1994).

60)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33; H. Gese, *Tod*, 41-45; D. Michel, “Ich aber bin immer bei dir. Von der Unsterblichkeit der Gottesbeziehung”, 156-158.

그러므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앞 단락의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11-13절의 의문문이 수사학적 질문 외에 일반 의문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 하면서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 그렇다면 11-13절에서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2.5.1. 11-13절의 서론(10절)

시인은 3절 이후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해에 관한 논증을 10절 이후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시인은 10절에 나타나는 개념 ‘내 눈’(עֵינַי)을 3절의 ‘당신의 귀’(אָזְנוֹ) 개념과 관련시키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그의 실존적 위기와 죽음의 영역에 인접한 상황으로 탄원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 야웨를 통해서 2절 이후 표현되고 있는 야웨와의 능동적인 관계성을 연상시킨다. 물론 이러한 의도적인 문학적 관련성은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는 그의 탄원(Anklage)의 과정을 더 깊이 심화시키면서 근본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이해를 설정해가고 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한 그의 고통을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고발하는 탄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야웨의 하나님 되심(Gottsein)을 요청하고 있다. 10절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질문의 도입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인은 11절로 그의 논증을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질문으로 열고 있다. 그리고 그는 12절 이후에 나타나는 네 가지 명사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와 관련된 하나님 이해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 시인은 그의 연속되는 질문들을 제삼자(Dritte)의 죽음의 세계에 관한 이해와 대치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궁극적으로 그의 하나님 이해를 제삼자의 의견과 참여한 반명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2.5.2. 일반 의문문으로 이루어진 탄원

시인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에 반대하며, 그의 논쟁을 의문사“הֲ”와 “אִם”으로 이루어진 의문문을 통해서 펼치고 있다:

הֲלֹמְתִים תַּעֲשֶׂה פֶלֶא (11a)

אִם אֲדַפְּאִים קִוְמוּ יוֹדוּךָ סֵלָה: (11b)

죽은 자에게 당신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겁니까?

아니면[또는] 유행들이 일어나 당신을 찬송해야 합니까? (셀라)

11a절과 11b절의 주제는 이미 앞의 단락에서 다룬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Terminus)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 의문문은 내용적인 반복과 두 단어(הַלְמֹתִים/죽은 자와 רָפְאִים/유령들)의 동일한 끝음(ם)으로 “동의적 평행법”(synonymen Parallelismus)을 이루고 있다. 핵심어 “죽은 자”(הַלְמֹתִים)로 “제삼자”(원수)와 시인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비교, 6a절의 בְּמֹתִים). 11a절에서 행위의 주체로서 **하나님**(תַּעֲשֶׂה-פְּלֵא)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הַלְמֹתִים/죽은 자와 רָפְאִים/유령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יִקְוֹמוּ יוֹדְדֵי תַּעֲשֶׂה-פְּלֵא).

하나님의 행위로 시작하는 11-13절까지의 연속적인 질문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죽은 자들’이다. 이 질문의 첫 등장인물은 하나님이다(11a).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행위가 전면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11a과 상응하여 11b절 이후의 질문의 등장인물은 모두 예외없이 ‘죽은 자들’이다. 이들과 관련하여 11b절에서 특별히 문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동사, “קום”과 “ירה”가 눈에 띈다. 이들은 문법상으로는 모음 “י”(paenultima-Bedeutung)와 단어의 모음 a-u-u와 o-u-a를 통해서 두 단어의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11a절이 한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것과 구별된다. 우리는 이 문장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11a절 뒤에 위치하면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일어섬과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1a절과 11b절의 구문상 차이가 암시하는 것은 11-13절의 연속적인 질문이 내용적인 “포크형 단락”(sukzessive Versgabelung)⁶¹⁾을 구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설명해 보자! 11a절은 간략한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바로 11b절 이후 12-13절까지는 문장 구조상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11a절과 확연한 구별을 이루며 장황한 설명 형식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1a절의 야웨의 긍정적인 행위(תַּעֲשֶׂה-פְּלֵא/기적을 행하심)가 11b절의 죽은 자의 긍정적인 행위(יִקְוֹמוּ יוֹדְדֵי)와 평행을 이루면서, 이어서 죽은 자들의 행위가 13절까지 길게 나열되고 있다. 11b절에서 13절까지의 행위가 11a절 하나님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뒤따르는 11-12절의 구문상 특징을 분석해보자.

도입부 첫 번째 의문문 후 12절에서 시인은 더 나아가 계속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61) K. Seybold, *Die Psalmen: Eine Einführung*, UB 382 (Stuttgart: Kohlhammer, 1986), 60.

각각 4문장마다(mit interlinearen Parallelismus) 죽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을 위치시키고 있다. 또한 죽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특성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표현하고 있다. 12절에서는 교차대구법이 형성되며 두 명사가 주요개념으로 작용되면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הַיְסוּדִים	선포될 수 있습니까? (12절)
בְּקִבְרֵי	무덤에서
הַיְסוּדִים	당신의 인자하심이
אֱמוּנָתְךָ	당신의 성실하심이
בְּאֶרֶץ	멸망 중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연속되는 질문(Totenreich)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강조 수동형 동사(הַיְסוּדִים/Pual)를 사용하고 있다.⁶²⁾ 시인은 12절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특징으로 마무리 하면서 동시에 13절의 표현 “알다”(הִיָּדַעַת)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표현으로 전체 연속적인 질문을 닫고 있다:

הִיָּדַעַת בְּחֹשֶׁךְ	(13절)	흑암 중에서 인식될 수 있습니까?
בְּלֵאָה		주의 기적과
וְצִדִּיקֶיךָ		주의 공의가
בְּאֶרֶץ נַשְׂיָהּ		있음의 땅에서

13절에서의 동사는 12절과 같이 수동형이 쓰이고 있다. 11절에서 질문의 형태와는 달리 12-13절의 질문은 일반적인 ‘의문사’(הִי)를 가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지’(הִי) 아니면 ‘죽은 자가 일어나야 하는지’(הִי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전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12-13절에서 11절과 다르게 취한 의문문의 형태는 이러한 양자택일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법 양식을 통해서 시인의 간청을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2절과 13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동태를 가진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시인은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자택일의 의문문 형식을 소화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동형 동사는 하나님의 행위와 죽은 자의 반응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11절에서 의문사 “הִי”와 “הִיא”은 능동형 문장을 이루며 동시에 행위의 주체들은 “당신”과 “죽

62) B. Janowski, *Die Toten loben JHWH nicht*, 21. 수동형 동사를 지니고 있는 5절이 눈에 띈다. 여기서 5-6a절과 12절 이후 사이의 통일성을 볼 수 있다.

은 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2-13절이 수동형 문장으로 대치되면서, 11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체들에 관한 관심사와는 달리, 수동형 문장을 통해 주체들이 행하는 행위에 우리를 집중하게 한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그것의 ‘선포’가 중심 주제이다. 13절도 동일하다.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가 ‘앓’과 조화를 이룬다. 12절과 13절의 공통적인 장소는 ‘무덤’과 ‘혹암’ 중이다.

“포크형 단락”(sukzessive Vergabelung)으로 11a절에서 시작되는 내용이 11b절에 이어서 12-13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12절에서 “무덤에서 당신의 인자하심을”(12a)과 “멸망 중에서 당신의 성실하심을”(12b)이 대구를 이루면서 12절 첫 번째 단어인 선포의 주체는 내용상 11a절의 “하나님”(비교, 당신)과 11b절 “죽은 자”가 된다. 13절도 12절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11-13절은 그 어디에도 수사학적인 질문이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장의 구조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이들이 일반 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 의문문, 11-13절에서 시인은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해를 직접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11절) 간접적으로도 표현하고 있다(12-13절). 그는 그의 원수들의 이해와 연결하여 그의 유일신론적인 하나님 이해를 구체화 하고 있다. 연속적인 질문형식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실존적인 질문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고 있는지, 행할 수 있는 것인지, 행하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물론 질문형식을 가진 탄원을 통해서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11절은 야웨의 긍정적인 행위(אֱלֹהֵי-יְהוָה/기적을 행하심)가 죽은 자의 긍정적인 행위(אֲנִי וְיִשְׁרָאֵל)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 죽은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이 연속적인 질문형태는 하나님의 행위 혹은 답변과 관련하여 가능성 높은 기대를 암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행위를 소망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한 기대되는 기적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시인인 “나”는 죽음의 세계에서 그에게 속할 수 있다.⁶³⁾ 내용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대답이다. 여기서 시인의 자기 이해, 다시 말하면 그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죽음의 세계에서(7절) 일어날 것이며(11절), 더욱이 그곳에서 야웨를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길 원한다(11-12절).

63) B. Janowski, *Die Toten loben JHWH nicht*, 219.

2.5.3.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권능

11-13절의 질문으로 시인은 제삼자의 하나님 이해(5-6절)에 최종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5-6절에서 시인의 주변인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는 더더욱 아니다. 연속적인 질문, 11-13절은 일반 의문문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12-13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 “인애”, “신뢰”, “기적” 그리고 “정의”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행위의 특징과 능력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인은 이와 같은 특별한 형식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11-13절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해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⁶⁴⁾ 그리고 시편 88:11-13의 다양성을 간과한 많은 해석자들의 관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하나님과 죽음과의 관계에 관한 구약성서적인 언급에 매우 닫힌 그림(Bild)과 연결되어 있다.”⁶⁵⁾

우리는 앞에서 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시적인 형태를 근거로 시편 88:11-13의 중심에 어떤 굳혀진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1-13절의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의문문”(echte Fragen)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⁶⁾ 이 연속되는 질문의 특징을 정확히 살펴보면, “단지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거나(tut), 행할 수 있거나(tun kann), 행할 때만이(tun wird), 단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새로운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킬 때만이, 여기서 ‘기도하는 나’는 비로소 다시 그런 기적을 행하심에 대한 새로운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64) F. Crüsemann, “Rhetorische Fragen!? Eine Aufkündigung des Konsenses über Psalm 88, 11-13 und seine Bedeutung für das alttestamentliche Rede von Gott und Tod”, 351: 지금까지 연구사의 경향과 달리 크뤼제만은 11-13절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보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이다.

65) J. Schiller, “Für die Toten wirst Du ein Wunder tun”, 61.

66) F. Crüsemann, “Rhetorische Fragen!? Eine Aufkündigung des Konsenses über Psalm 88, 11-13 und seine Bedeutung für das alttestamentliche Rede von Gott und Tod”, 347.

67) Ibid., 351.

3. 나가는 말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는 11-13절을 신학적 해석과 관련하여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연구사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견해는 5-6절에 나타나는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를 시편 88편의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로 삼았다. 시인의 고난을 죽음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와 동일시하며 시인의 고난 극복의 문제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시편 88편 전체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의 주변인의 하나님 이해와는 달리 새로운 하나님 이해에 접근해 간다.⁶⁸⁾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인되는, 또는 다른 힘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던 고대 죽음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그는 그의 유일신 사상을 구체화 한다. 시인은 죽음의 세계에서 권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피력해 내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5-13절에 이르기까지 내용상 분석을 통해서 11-13절의 질문은 크뤼제만이 지적한 것처럼 수사학적인 질문의 형식에 담겨 있는 어떤 한 ‘주장’(Behauptungen)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⁶⁹⁾ 11-13절의 질문은 “죽은 자에게 야웨는 기적도 행하지 않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⁷⁰⁾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죽은 자와 동일한 시인은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이루기를 일반 의문문 형태로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11-13절을 수사 의문문으로 보는 지금까지의 연구사의 경향은 시편 88편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본 논문은 시편 88편이 이루고 있는 구조와 형식을 통해서도 11-13절의 연속적인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1-13절은 “포크형 단락”(sukzessive Versgabelung)이다. 11절에서 실제적으로 의문사 “**ו**”와 “**אֲנִי**”로 일반 의문문을 구성하고, 특별한 형태를 통해서 11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12-13절도 일반 의문문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68) O. Kaiser, *Vom offenbaren und verborgenen Gott*, BZAW 392 (Berlin: De Gruyter, 2008), 226-227.

69) F. Crüsemann, “Rhetorische Fragen!? Eine Aufkündigung des Konsenses über Psalm 88, 11-13 und seine Bedeutung für das alttestamentliche Rede von Gott und Tod”, 351.

70) B. Janowski, *Psalm 88*, 18.

있다.

시인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며 구원과 새로운 회복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다(11a절). 그의 탄원에서 죽음의 세계로부터 구원 혹은 고난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단지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이다(11a, 12-13절). 더욱이 하나님만을 통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vom Tod)뿐만 아니라 죽음에서(in dem Tod) 가능한 구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신학을 시인은 특별한 형식, 원수들과의 논쟁을 띤 탄원 형식과 하나님을 향한 탄원 형식, 그리고 ‘공정’을 요구하는 11-13절의 질문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은 시편 88:11-13을 수사학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 88:11-13은 일반 의문문으로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를 시인이 새롭게 이해한 유일신 하나님 사상의 단단한 토대 위에 역동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시편 88:11-13의 적절한 번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죽은 자에게 당신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겁니까? 아니면(또는) 유령들이 일어나 당신을 찬송해야 합니까? 당신의 인자하심이 무덤에서, 당신의 성실하심이 멸망 중에 선포될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잇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가 인식될 수 있습니까?” 시편 88편의 시인이 그의 탄원의 절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통한 유일한 구원신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Keywords)

수사학적 질문, 고난, 탄원, 유일신론,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

Rhetorical Question, Suffer, Claim, Monotheism, Imagination of the world of the death.

(투고 일자: 2014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차준희, 『시편신앙과의 만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C. 베스터만, 『시편해설: 시편의 주제, 구조 그리고 메시지』, 노희원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 E. 쟁어, 『복수의 하나님?』, 이일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Albertz, R.,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P. Stuhlmacher and C. Westermann, eds., *Calwer Theologische Monographien* 9, Stuttgart: Calwer, 1978.
- Anderson, A.A., *Psalms I-II*, NCEB, London: Oliphants, 1972.
- Baethgen, F., *Die Psalmen*, HK II:2, 3rd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4.
- Baldermann, I., *Einführung in die Bibel*, UTB 148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 Barth. C., *Die Errettung vom Tode in den individuellen Klage- und Dankliedern des Alten Testaments*. Mit zwei Anhängen, einer Bibliographie und Registern neu herausgegeben von B. Janowsk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²1987.
- Butting, K., “Der Tod wird nicht mehr sein”, *JK* 66 (2005), 1-4.
- Craigie, P. C.,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Nashville: Thomas Nelson, 2004.
- Crüsemann, F., “Rhetorische Fragen!? Eine Aufkündigung des Konsenses über Psalm 88, 11-13 und seine Bedeutung für das alttestamentliche Rede von Gott und Tod”, *Biblical Interpretation* 11 (2003), 345-360.
- Dahood, M., *Psalms 1-50*, AncB 16, Garden City: New York, 1965.
- Dahood, M., *Psalms II*, AncB 17, Garden City: New York, 1968.
- Dahood, M., *Psalms III*, AncB 17 A, Garden City: New York, 1970.
- Delitzsch, F., *Biblischer Kommentar über die Psalmen*, BC IV:1, Leipzig Sachsen: Dörffling & Francke, 1894.
- Duhm, B., *Die Psalmen*, KHC XIV, Tübingen: Mohr, 1922.
- Eising, H., “זכר”, *ThWAT* II (1977), 571-593.
- Gese, H., “Der Tod im Alten Testament”, Gese, H., ed., *Zur biblischen Theologie. Alttestamentliche Vorträge*, Tübingen: Mohr, ³1989.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FOTL 15, Grand Rapids: Eerdmans, 1988.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 Goldingay, J., *Psalms: Psalms 1-41*, Grand Rapids: Baker, 2006.

- Groß, W., “Gott als Feind des einzelnen? Psalm 88”, W. Groß, ed., *Studien zur Priesterschrift und zu alttestamentlichen Gottesbildern*, SBAB 30,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9, 159-171.
-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Haag, E., “Psalm 88, Freude an der Weisung des Herrn”, E. Haag, and F.-L. Hossfeld ed., *Beiträge zur Theologie der Psalmen* (FS H. Groß [SBB 1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6, 149-170.
- Hossfeld, F.-L. and Zenger E., *Die Psalmen I*, J. G. Plöger and J. Schreiner, eds.,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1993.
- Hossfeld, F.-L. and Zenger E., *Die Psalmen II, Psalm 50-100*, J. G. Plöger and J. Schreiner, eds., Die Neue Echter Bibel 40, Würzburg: Echter, 2002.
- Hossfeld, F.-L. and Zenger E.,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00.
- Janowski, B.,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 Janowski, B., *Der Gott des Lebens*,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 Janowski, B., “Die Toten loben JHWH nicht. Psalm 88 und das alttestamentliche Todesverständnis”, F. Avemarie and H. Lichtenberger, eds., *Auferstehung – Resurrektion*, WUNT 135, Tübingen: Mohr, 2001.
- Janowski, B., “Jenseitsvorstellungen II/2”, *4RGG*, Bd. 4 (2001), 406-407.
- Jenni, E.,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Basel: Helbing & Lichtenhahn, 1981.
- Kaiser, O., *Vom offenbaren und verborgenen Gott: Studien zur spätbiblischen Weisheit und Hermeneutik*, BZAW 392, Berlin: De Gruyter, 2008.
- Keel, O., *Die Welt der altorientalischen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Am Beispiel der Psalmen*, Züric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Göttingen, 1996.
- Kraus, H.-J., *Psalmen I: Psalm 1-59*, BK XV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Kraus, H.-J., *Psalmen II: Psalm 60-150*, BK XV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Lang, B., and Mc Dannell, C., *Der Himmel. Eine Kulturgeschichte des ewigen Lebens*, Frankfurt: Peter Lang, 1996.
- Lee, I., *Das Gottesbild der leidenden Israeliten: Monotheismus und Theoldizeefrage in ausgewählten Klagepsalmen des Einzelnen*, Verlag-Europäische

- Hochschulschriften Reihe XXIII Theologie, Bd. 937, Frankfurt: Peter Lang, 2013.
- Lindström, F., *Suffering and Sin. Interpretations of Illness in the Individual Complaint Psalms*, CB.OT 37, Lund: Almqvist & Wiksell, 1994.
- Liwak, R., “רַפְּאִים”, *ThWAT* VII (1993), 625-36.
- Loretz, O., *Die Psalmen. Teil II*, AOAT 207:2, 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 1979.
- Michel, D., “Ich aber bin immer bei dir. Von der Unsterblichkeit der Gottesbeziehung”, Michel, D., ed.,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alttestamentlicher Texte* TB 93, Gütersloh: Christian Kaiser, 1997.
- Oeming, M., *Das Buch der Psalmen. Psalm 1-41*,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13:1,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0.
- Preuß, H. D., “Psalm 88 als Beispiel alttestamentlichen Redens vom Tod”, A. Strobel, ed., *Der Tod - ungelöstes Rätsel oder überwundener Feind?*, Stuttgart: Calwer, 1974.
- Schiller, J., “Für die Toten wirst Du ein Wunder tun”, *Protokolle zur Bibel* 14 (2005), 61-66.
- Schmitt, B. B., *Israel's Beneficent Dead: Ancestor Cult and Necromancy in Ancient Israelite Religion and Tradition*, FAT 11, Tübingen; Mohr, 1994.
- Seybold, K., *Die Psalmen: Eine Einführung*, UB 382, Stuttgart: Kohlhammer, 1986.
- Seybold, K., *Das Gebet des Kranken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Kohlhammer, 1973.
- de Vos, C., “Klage als Gotteslob aus der Tiefe: Der Mensch vor Gott in den individuellen Klagepsalmen”,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Weiser, A., *Die Psalmen*, ATD Bd. 14:1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3, ⁸1973.
- Weber, B., *Werkbuch Psalmen 1- Die Psalmen 1 bis 72*,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2001.
- Wolf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Verlag, ³1977.

<Abstract>

Is Psalm 88:11-13 a Rhetorical or General Question?

Il-rye Le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studies, we relate verses 11-13 to theological translation, and understand it as a rhetorical question. We are able to examine a general tendency in these studies where researchers saw the enemies' comprehension of God in verses 5-6 as the main theological topic in Psalm 88. The suffering of the poet is seen as death. The poet gets redeemed through a suffering like death, but not through actual death.

Therefore, the suffering poet approaches the monotheistic understanding of God in the whole body of Psalm 88. Through the new comprehension of the ancient world after death controlled by might from a different area, his monotheistic idea takes shape. The question in verses 11-13 contains "JHWE does not carry out any miracle to the dead, the dead does not rise up to praise god."

The article analyses whether the continuous questions in verses 11-13 should be understood as rhetorical questions through the structure that forms Psalm 88. Verses 11-13 are a "fork-formed statement". In verse 11, this fork-formed statement forms a general question with the interrogative ׀ and ׀׀ . And not only in verse 11, the following verses of 12-13 also suggest the possibility of a general question through a particular structure.

In midst of suffering, the poet adheres to his belief in God, and entreats eagerly for salvation and a new recovery. In his entreaty, only God can provide the inevitable intervention for salvation from the world after death or recovery from his suffering. Furthermore, the salvation through God refers to salvation not only from the death (von Tod) but also in death (in dem Tod).

We must therefore re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ranslate verses 11-13 of Psalm 88 rhetorically in Korean and other language Bible translations. For as we observed, verses 11-13 of Psalm 88 are an interrogative clause. The poet asserts the theological subject of 'God's authority after death' based on the poet's new understanding of monotheistic ideology.

In addition, only through appropriate translation of verses 11-13 of Psalm 88,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poet's monotheistic faith which is expressed at the climax of the entreaty that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God.